

뉴스홈 | 최신기사

<盧소환> 천리길 5시간17분 걸렸다

송고시간 | 2009-04-30 13:55



윤종석 기자
기자 페이지

<盧소환> 천리길 5시간17분 걸렸다

(서울=연합뉴스) 윤종석 박성민 기자 =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출발한지 5시간17분 만인 오후 1시19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도착했다.

버스에서 내린 노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"면목이 없습니다"라고 말했으며, 다른 질문에는 "다음에 합시다"라고만 언급하고 청사 안으로 사라졌다.



노 전 대통령의 검찰행 `천리길'은 당초 우려와 달리 경찰의 기만한 경호 속에 차분하고 안전하게 진행됐다.

이날 오전 8시2분 봉하마을에서 출발한 버스는 8시17분 진례 · 진영나들목을 통해 남해고속도로에 진입했다.

이어 8시34분 칠원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갈아탔고, 10시24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분기점에서 청원·상주고 속도로로 옮겼다.

한시간여 뒤인 11시34분 버스는 청원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다시 이동한 뒤 경부선을 계속 달려 오후 1시 서울통게이트를 통과했다.

버스는 앞서 12시20분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 들어 10여분간 휴식을 취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.

서울에 진입한 버스는 1시10분 양재나들목으로 나와 우면산 터널을 통과해 예술의 전당을 지나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했다.

노 전 대통령이 탄 버스는 경호 차량의 호위 속에서 초반에는 시속 80-90km를 유지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접어들 이 후 60-70km로 늦춰지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서 나와서는 110km까지 속도를 높였다.

취재차량 8대는 노 전 대통령이 탄 버스에 근접해 취재를 시도했지만 버스 창문이 짙은 색으로 틴팅(Tinting: 유리창에 색을 넣어 빛 투과율을 줄이는 것)돼 있어 노 전 대통령과 동승자들의 모습은 포착하지 못했다.

버스에는 노 전 대통령의 번호를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민정수석, 김경수 비서관 등이 동석했다.

이에 일부 취재차량은 버스 앞쪽으로 이동해 망원렌즈를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 운전석 뒤의 커튼 때문에 무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.

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를 따라 담당 구역별 고속도로 순찰대를 보내 `릴레이 에스코트'를 했으며, 버스가 경부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휴게소에서 나올 때에는 도로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.

당초 경찰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KTX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고속도로 이용을 고수했다.

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'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기원전 2-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브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...



banana@yna.co.kr

min76@yna.co.kr

🔗 관련기사

檢, 盧 전 대통령 소환..조사 시작(종합)

<盧소환> 선진 "불행한 역사 반복없길"

<盧소환> 민노 "盧, 의혹 모두 밝혀야"

<盧소환> 한 "구태정치 마침표 돼야"

<盧소환> 민주 "불행한 일..현장권도 조사해야"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9/04/30 13:55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

[영상]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...누가 학대했나

▶ 02:22

[영상] 곡사포 수송헬기-장갑차...美 꺼렸던 무기들
결국 우크라이나

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
링크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상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

당신을 위한 온종일 마중, 롯데캐슬
LOTTE CASTLE
www.lottecastle.co.kr

We Do Technology

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, 2년 17개월만 종료...마스크는 그대로

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"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...美와 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의학에 뜻"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- 1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

138
- 2

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

60
- 3

'유퀴즈'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"(종합)

60
- 4

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 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?

55
- 5

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"

39

뭐하고 놀까? #홍→

뉴스홀	최신기사	정치	북한	경제	산업	사회	전국	세계	문화	라이프	연예	스포츠	오피니언	사람들					
비주얼뉴스	영상	포토	화보	#D	그래픽							뉴스 상품	프리미엄뉴스	뉴스리더	인타넷맞춤형	보도자료	해외배포	보도자료 국내배포	
데미벨뉴스	핫뉴스	톱뉴스	주요뉴스	긴급뉴스	단독뉴스	많이본뉴스						출판물	이매진	연합연감	영문연감	한국인물사전	단행본	월간 미디어스	
뉴스+	이슈돋보기	팩트체크	재난포털	날씨	주요신문	톱뉴스/사설	이시각	헤드라인				광고	KTX 열차	AREX 공항철도	모바일	PC/홈페이지	출판물		
모바일 뉴스	모바일웹	모바일앱										콘텐츠 판매	보도사진	이미지	그래픽	동영상	인물		
외국어	English	中文	日本語	عربي	Español	Français						관련사이트	연합뉴스TV	인포맥스	한민족센터	K컬처기획단(K-ODYSSEY)	채용	IR 클럽	#총

계약사/제휴문의